

## 브랜드 페르소나 설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메릴랜드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였던 케빈 플랭크Kevin Plank라는 사람이 있어. 땀배기였는데, 축구에서도 가장 많이 뛰는 포지션 중 하나이니 땀이 말도 못하게 나는 거야. 땀 때문에 불편하고 성가셔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쫄쫄이 옷을 줬다는 군. 그걸 안에 받쳐 입으니 땀을 잘 빨아들여 좋더라. 그래서 디자인을 개량해서 팔 생각으로 ‘옷 안에 입는 갑옷’이라는 의미로 언더아머(Under Armour)라고 이름 붙였어.

이제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드러나지 않게 입으니 언더독(underdog)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는 대기만성에 대한 기대를 뜻하잖아.

사업 초기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으니, 젊고 유망하지만 아직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몇 명 후원하며 광고했는데, 그중 한 명이 스테픈 커리Stephen Curry야. 누군지 알지? 그 유명한 농구선수.

지금은 키가 188cm까지 자랐지만 그래도 농구선수치고는 작잖아. 그 당시엔 더 작아 180cm에 72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체형이라 농구계에선 알아주지 않는 데이비슨 대학에 진학했어. 거기서는 잘했느냐? 푹하면 발목을 삐었대. 다행히 발목 인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골밑보다는 외곽에서 3점슛하는 것에 치중하자 점차 경기력이 향상되었고, 2014년에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하면서 슈퍼스타 대열에 합류하게 되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커리는 최근 몇 년째 MVP야. NBA 통산 최다 3점슛, 파이널 최다 3점슛, 최다 연속경기 3점슛 등 NBA의 3점슛에 관한 거의 모든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초기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언더독이었는데, 어느새 어마어마한 선수가 된 거야.